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 루이스 고이띠술로와 까르멘 마르뎨 가이떼

조민현
(고려대)

1. 들어가면서

1970년대 초반 프랑코 정권의 쇠락과 더불어 과거를 회고하는 글쓰기가 작가들 사이에 하나의 붐처럼 나타났다. 갑자기 다가온 민주화의 기운은 지난 수십 년간 견고한 성처럼 지배한 프랑코이즘이 스페인인들의 삶과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준 것이었는가를 반성하게 된 것이다.¹⁾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이띠술로의 『다시 쓰는 이야기』(Recuento)나 마르뎨 가이떼의 『뒷방』(El cuarto de atrás)도 이러한 회고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두드러진 예들이다. “루이스 고이띠술로가 이 시

1) J. M. Gil Robles의 “나는 군주제를 의해 싸웠다” (1976)와 Fco. F. Salgado의 “프랑코와의 개인적인 대화”는 직접적인 정치적 주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회고적 분위기에 일조했다. 시공간적인 맥락에서 스페인적인 문제를 시적인 독백으로 다룬 후안 고이띠술로의 『홀리안 백작의 복귀(Reivindicación del conde don Julián)』(1970)와 후안 마르세의 『누가 내가 죽었다고 하거늘(Si te dicen que caí)』(1973)도 스페인 역사와 전후 스페인의 문제를 다룬 문제작들이다.

대의 서사 양식에서 반복(reiteración)을 통하여 전후 스페인 역사를 다시 언급하려고 한다”²⁾는 소베하노 모란의 지적처럼 『다시 쓰는 이야기』는 그 제목에서부터 과거를 회고하는 반성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뒷방』의 경우에서도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역사를 암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스페인에서 70년대에 일어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재조명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역사를 언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서술 방법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소설가들은 문학적 허구를 통하여 역사가들과는 상이한 전망 속에서 역사라는 소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당시의 문학이 단순히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진리와 의미의 기록이라고 믿어왔던 공식적인 역사를 문제시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글쓰기 미학으로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프랑코 시대에서의 역사라는 개념과 그 반향을 고찰해 본 후 그것이 어떻게 문학화의 과정을 통해서 해체되고 새롭게 성찰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역사의 신화화 - 프랑코이즘

통일된 스페인의 카톨릭 왕들인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십자군 정신의 완성이라는 신념아래 유대인들을 추방한다. 뒤이은 무어인들의 추방은 16세기 광대한 제국을 형성한 스페인이 카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아래 ‘순혈(純血)’(limpieza de sangre)을 강조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 일환이었다. 다시 말해서 신대륙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반 이상을 차

2) Antonio Sobejano-Morán, “Ironía y parodia en *Recuento* de Luis Goytisolo: Crítica y destrucción de la España de posguerra”, *Hispania*, 72, 3, septiembre de 1989, p. 510.

지한 스페인으로선 통치이념의 보편성을 종교에서 찾곤 하였다. 호세 루이스 아베얀은 “카톨릭 왕들에 의해서 행해진 종교 정책은 무엇보다 국가의 단일성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갔다.”³⁾ 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세계를 정복했으나 스페인 스스로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유대인과 무어인 추방 조치는 금융과 산업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 타격을 가져오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으로 꽃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뒤쳐지는 단초로 작용하였다. 아베얀은 “이러한 의미에서 카톨릭 왕들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정책이 16세기 내내 지속된 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⁴⁾고 말한다. 또한 국가 정체성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종교 정책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스페인’과 ‘안티 스페인 (Anti-España)’의 구별을 역사 속에 남겨놓았다. 16세기 ‘에라스무스주의’와 ‘반에라스무스’의 대립, 계몽주의와 그에 반한 반동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공화주의’와 ‘프랑코파’와의 대립으로 구체화된 내란이 그 예이다. 존 H. 엘리엇에 의하면,

에라스무스주의자와 반(反)에라스무스주의 사이의 갈등은 어떤 점에서는 스페인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노선을 두고 서로 대립했던 두 이념간의 갈등이었다. 두 스페인간의 항구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도 스페인 역사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너무도 자주 이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⁵⁾

이러한 과정에서 스페인은 종교 재판을 발판으로 국가의 기능으로서의

3) José Luis Abellán,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 Séneca a nuestros días*, Madrid, Espasa Calpe, 1996, pp. 106-107.

4) José Luis Abellán,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 Séneca a nuestros días*, Madrid, Espasa, 1996, p. 107.

5) 존 H. 엘리엇,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김원중 옮김, 서울, 까치, 2000, p. 237.

종교를 역사 속에 심어 놓았다. 브르봉왕가에 의해서 18세기 잠시 꽃핀 계몽주의 운동에 의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뿌리깊은 스페인의 종교에의 집착은 근대화의 과정을 걷는 와중에서도 다른 유럽처럼 철저하게 신앙과 이성의 분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 사상적 모토로 독일의 크라우제의 철학을 받아들여 종교와 과학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만유내재신론(panenteísmo)에 기반을 둔 크라우제주의는 범신론(panteísmo)과 유신론(teísmo)의 두 고전적 개념을 자의적으로 결합하고자 한 시도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종교적 틀을 유지하려는 스페인적 맥락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과학적 실증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크라우제주의는 카톨릭 전통 속에서 배제되어온 열린 스페인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나아가선 아나키즘, 사회주의 등의 사상들이 19세기말부터 스페인 사회에 뿌리를 두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20세기 전반부의 스페인은 그러한 진보 사상들과 보수적인 스페인 전통 사이의 각축장으로 변모되었다. 이 두 개의 상이한 스페인이 구체적으로 폭발한 현상이 내란이며 사제와 기독교 총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프랑코가 승리함으로써 스페인은 다시 역사 속의 닫힌 전통을 걸게 되었다.⁶⁾

그런데 여러 이념적 갈등 속에서 승리한 프랑코는 단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승리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승리가 역사 속에 기반을 둔 것임을 천명하며, 정통적인 카톨릭교를 바탕으로 한 ‘영원하고 견고한 스페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인종, 하나의 종교”(Una España, una raza, una religión)를 모토로 역사를 신화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단행하여 프랑코 체제를 역사 속에서 정당화된 승리로 환원시키려고 하였다. 다음 승리의 개념에 대한 프랑코의 연설문

6) 최근 상영되었던 영화 마리포사(원제목: La lengua de las mariposas, 나비의 혀)는 스페인 내란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분리된 ‘두 개의 스페인’이 갈리시아의 평온한 마을에서 그리고 한 가정 속에서도 나타남을 그리고 있다.

을 보자.

우리의 승리는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스페인의 여러 정치 세력 중에서 한 부분, 하나의 당, 한 계급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승리 속에서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은 거짓 것밖에 현혹되어 위태롭게 함정에 빠진 이들의 한탄할만한 상황이다. 우리의 승리는 ‘안티 스페인’에 대항한 스페인의 승리였으며,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던 한 나라를 구하려는 영웅적인 재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스페인의 모든 계층과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갈 것이다.⁷⁾

역사 속에서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승리에 대한 개념은 “유일한, 위대한, 자유로운 (Una, grande, libre)” 스페인이라는 선전 문구로 요약되며, 이러한 국가적인 신화는 당대의 사람들을 그 논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말하자면, 프랑코 시대의 신성화된 개념들은 사람들의 존재방식뿐만 아니라 사고하고 느끼는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총체적 규범으로 변모되었다. 신화에 대한 롤랑 바르트의 분석에 의하면, “신화는 인간 행위들의 복잡성을 제거하며, 그 행위들에 단순한 본질을 부여한다. 그리고 신화는 모든 변증법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신화는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가시성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제 신화는 모순이 없는 세계를 조직한다. 왜냐하면 신화가 만들어낸 세계는 깊이를 지니지 않으며 자명성 안에 펼쳐진 세계이기 때문이다.”⁸⁾ 『다시 쓰는 이야기』의 한 일화는 전쟁 후 프랑코가 만들어낸 신화적 개념들이 어떻게 일상 생활 속에까지 침투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빨리손 신부는 식사할 때나 방문할 때 등 일상 생활의 매 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했다. 또한 몸차림, 옷 정리, 기상과 취침할 때,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한 순간도 별거벗은 채로 남아있지 않도록 했다. (R, 21)⁹⁾

7) Francisco Franco, *Franco ha dicho*, Madrid, Voz, 1949, p. 21.

8) 롤랑 바르트, 신화론, 정현 옮김, 서울, 현대미술사, 1995, p. 71.

9) Luis Goytisolo, *Recuento* (1973), Madrid, Alianza, 1987. 약자로 R로 표기하

이렇듯, 카톨릭과 프랑코주의는 절대적 규범으로서 부과되어지며 한 세대 이상 계속되면서 신화적인 모태성으로 굳어져 당시의 모든 사상과 문학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할 수 없는 좌표로 설정되었다.

3.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그 한계성

프랑코이즘이 만들어낸 역사에 대한 최초의 반발은 흔히 50년대 세대라고 불리는 일군의 작가들 즉, 후안 고이띠솔로, 루이스 고이띠솔로, 헤수스 페르난데스 산토스, 까르멘 마르틴 가이예 그리고 라파엘 산체스 페를로시오 등의 처음 글쓰기에 나타난다. 이들은 객관적인 현실을 언어 기호로 반영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당대의 구체적인 삶을 고발함으로써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산즈 비야누에바에 의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예술은 “사회에 대해 무의미한 것이 아닌 윤리적이고 거의 정치적인 기능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이 감지되는 전제하에, 우리는 사회주의 문학이 무엇이고 특히 사회주의 소설이 어떤 것인지를 적용해야 한다.”¹⁰⁾고 말한다. 이렇듯 프랑코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언어를 통한 현실 개혁의 움직임과 공식적 역사에 대한 비판은 50년대 신리얼리즘(neorealismo)의 이름아래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는 외적 대상을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언어기호와 외적대상은 시간성을 배제한 자의적인 결합 체계이기에 기호로 대신한 사물은 허구적 부산물일 뿐이다. 그런데, 리얼리즘 작가들은 외부 현실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다빗 허츠버거는 “사회주

며, 인용된 문장과 함께 괄호 안에 있는 쪽 번호는 이 출판사에서 인용한 것임.

10) Santos Sanz Villanueva, *Historia de la novela social española (1942-1975) I*, Madrid, Alhambra, 1980, p. 146.

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반대로 신화적 언술을 창조하는 것에 의해서 국가의 신화에 대항하려고 하였다.”¹¹⁾고 주장한다. 즉, 프랑코주의자들이 역사를 신화화했다면, 이 시대의 작가들은 ‘전형성’이란 미명하에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불완전한 언어를 통해 고정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신화성을 창조했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언어는 시간 속에서 끝없이 연기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외적 대상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한 예로, 『다시 쓰는 이야기』에서 몇 페이지에 걸쳐 정교하게 전후 스페인 사회에 대해 맑스적 해석을 가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우리의 전술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염두에 두면서 모든 가능한 행동들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별 볼일 없는 행동일지라도 그 파장이 결국 국가적 차원의 예고된 파업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파업으로- 나아가서 독재의 완전한 타도로 갈 수도 있다. (...) 그것은 정치 세력화된 소수와 학생 대중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위협스럽게 강조하는 것일 따름이다. (R, 201-202)

그런데 “변증법적인 용어들로 쏟아 붓는 그의 말들은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 기계처럼 정확하고 빈틈없는 엄격함과 논리성”(R, 203)을 가지나 기계(*una máquina*)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언술의 진실성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나타난다. 즉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말의 홍수 속에 의미

11) David K. Herzberger, “Narrating the Past: History and the Novel of Memory in Postwar Spain”, *PMLA*, V. 106, N. 1, January 1991, p. 36.

12) 황병하는 중남미 ‘붐’소설의 예술적 성공 중의 한 요소로 작중인물들이 전형들이 아니고 개인임을 강조한다. 그는 ‘전형’의 허상을 말하며, “리얼리즘이 한 규범적 세계관을 통해 작중인물들간에 어떤 관계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면 붐소설은 작중인물들의 세계관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관계는 한 규범적 세계관에 의해 박제된 비역사적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세계관들과 나누고 있는 어떤 교감, 즉 역사적 현재를 의미한다. 그러한 교감 안에는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지배, 동맹, 갈등, 우열, 도덕성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관계들이 나타난다.” 반리얼리즘 문학론, 부산, 열음사, 1992, p. 297.

는 사라지고 낱말들의 범람만이 남는다. 호세 앙헬 발란떼는 “인물도 사건도 없고 단지 언술만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말한다.¹³⁾

결국 프랑코 체제에 대한 50년대 작가들의 언술은 또 다른 신화적 체계를 낳은 결과를 초래하며 당대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산즈 비야누에바에 의하면:

50년대 세대 중 깨어있는 작가들은 자신들의 글쓰기 미학의 타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러한 사회 개혁의 도구로서의 문학이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세상을 변혁하며 프랑코이즘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보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적 전제를 통해 단순화와 대중주의로 돌아선 사회참여소설의 미학적 결핍 문제를 인정한다.¹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목도되는 변화는 리얼리즘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언어로 어떻게 세계를 형상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결과로 인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둔다.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의 “침묵의 시간”에서 비롯된 새로운 글쓰기의 경향은 70년대 초반 프랑코 체제의 쇠퇴와 함께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역사라는 것이 객관적 실체가 아니며 주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눈뜸에서부터 비롯된다. 리카르도 구온에 의하면:

주관적인 시선의 개입은 자명하다고 여겨진 사실에 아이러니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중립적인 시각에서 멀어진 서술은 이미 의도된 의미와 그 의미를 전복하려는 각축장이다. 그것은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당대의 편익에 의해서 읽혀지고, 해석되며, 때론 거짓 증거 되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역사는 팔호 속에 넣어지고, 그것을 쓰는 사람의 굳은 신앙만이 남는다.¹⁵⁾

13) José Ángel Valente, “Luis Goytisolo: *Recuento* (tres fragmentos de una lectura)”, *Ínsula*, 341, abril 1975, p. 13.

14) Santos Sanz Villanueva,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6/2: Literatura actual*, Barcelona, Ariel, 1984, p. 158. 실제로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엄청난 양의 사회 참여 소설들의 범람은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증을 낸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15) Ricardo Gullón, “Un texto de aire y de fuego”, *El cosmos de «Antagonía»*,

고이띠솔로의 『다시 쓰는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을 내포하며 1973년 출판되었고, 마르틴 가이페의 『뒤틀방』은 1978년에 빛을 보게 된다.

4. 기억과 꿈으로의 역사

기억이나 꿈은 시간의 인과 관계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비논리성을 바탕으로 한 시간에 대한 담론이 현대 소설론의 주요 부분을 형성한다.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현대 소설을 두 시기로 구분했던 라몬 버클리는 연대기적인 시간에서 벗어난 주관적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은 외부 사물과 절연될 때, 그 흐름이 중단되며, 정신의 흐름으로 바뀐다. 정신 속에는 (...) 과거를 현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¹⁶⁾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시간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한 내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알랭 로브 그리예는 시간이 현대 소설의 주요 ‘인물’임을 재차 부연하며, 이제 연대기적인 시간의 붕괴가 이야기 구성의 구조적 본질임을 천명한다.¹⁷⁾ 그것은 사건 구성에서 더 이상 시계나 달력 등의 시간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분절화된 시간이나 회고적인 시선이 서술 전략의 주요 인자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현대 소설에서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는 60년대 이후 스페인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고려되어진다. 데이빗 허츠버거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전후 스페인의 픽션과 역사에 대한 글쓰기에서

Barcelona, Anagrama, 1983, p. 51.

16) Ramón Buckley, *Problemas formales en la novela contemporánea*, Barcelona, ediciones península, 1968, p. 119.

17) Alain Robbe Grillet, *Por una novela nueva* (1963), Caridad Martínez, trad., Barcelona, Seix Barral, 1965, p. 169 참고.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졌음을 언급하며, 그 대표적인 서술 양식으로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소설’ (the Novel of Memory)을 드는데,¹⁸⁾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루이스 고이띠솔로의 『다시 쓰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쓰여진 『다시 쓰는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스페인 내란이 끝날 즈음에서 프랑코 군대의 행진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 시절, 그리고 프랑코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히고, 출옥 후 글쓰기를 시작하기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사의 단순한 이야기는 중간에 삽입된 주인공의 고향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의 역사와 중첩되면서부터 이중의 의미를 갖게된다. 즉, 제목이 암시하듯이 지난 일이 다시 이야기되어지며 이미 읽었던 내용은 또 다른 의미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기서부터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전개되던 스페인의 현대사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바르시노의 형성”과 주인공이 태어난 최근대사의 바르셀로나의 역사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자전적 이야기는 “이 순간 속에서의 지금의 나” (R, 654)로 귀결되며, 이렇게 기억으로 수렴된 역사는 화자점 저자의 내부의식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변모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거창하게 서술되던 역사에 대해 괄호 안에 넣어볼 것을 요구한다. 즉 내부화된 기억 속에서 바라본 세계는 일련의 공식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중요한 순간들의 모음 조각들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적 시간성에 대한 사고는 “현기증 또는 부동성, 가속 또는 중지” (R, 522)로 요약되며 유년 시절부터 시작된 연대기적인 순서는 파괴되고 잠시 눈 깜박할 사이의 기억 속의 공간이 600여 페이지의 책을 이루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로브 그리에의 말처럼, “공간은 시간을 파괴하고, 시간은 공간에 대해 거역을 하는 곳에서, 서술은 정체되고 모순되며, 결국 순간이 지속

18) David K. Herzberger, op. cit., pp. 34-35 참고.

성을 부정하게 된다.”¹⁹⁾

그런데 이렇게 내부화된 기억으로 바라본 세계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책의 첫머리는 주인공 라울의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 보여졌던 프랑코 군대의 행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경충 경충 뛰는 백마를 타고 칼을 빼들어 아래위로 휘두르며 말을 독려하면서 달리는 한 장교가 있었다. 백마를 탄 장교. (R, 7)

소설의 이러한 시작은 내란이 종결되면서 프랑코 군대들이 행진할 때를 사실적인 묘사로 보여주는 듯 하다. 그런데 좀더 생각해보면, 여기서 백마를 탄 장교의 모습은 무어족과의 전쟁인 국토 회복전에서의 전설적인 영웅 산티아고의 은유로서 프랑코 군대를 역사 속의 십자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카톨릭 스페인의 계승자인 프랑코 군대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직접적인 적자로서의 이러한 형상은 프랑코 군대의 행진 속에 끼어있는 용병인 무어족 군대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통해 의미를 잃고 만다. 즉, 십자군 같은 장엄한 행진을 바라보던 군중은 소리를 지른다. “저기 무어족들을 보라” (R, 8).

이렇듯 신화적 인물의 암시와 프랑코를 도운 무어족 군대의 공존은 언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만든다. 여기서부터 전후의 스페인 역사는 그 자체의 엄중함을 잃어버린 채 역사 속의 어떤 시기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프랑코가 무어족의 용병을 고용한 것을 생각할 때, 스페인 민중이 아랍의 팽창주의에 대항하여 저항했던 재정복 시기와의 관련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어쩔 론세스바예스, 라스 나바스 데 톨로사, 마요르까, 세비야, 발렌시아 그리고 그라나다 등 안티 스페인의 음흉한 발걸음들이 지났던 자리들 즉, 스페인

19) Allen Robbe Grillet, op. cit., p. 173.

의 영원한 적들의 존재들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는 것을 원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의 무훈은 엘 시드, 카톨릭 여왕 이사벨, 돈 키호테, 에르난 코르테스, 피사로 등의 비할 바 없이 위대한 국가적 업적 속에 위치되어진다. (...) 그렇다면, 스페인의 역사는 신성화된 역사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R, 553)

따라서 역사 속에서 프랑코는 정통적이고 유일한 전통을 내세웠으나 위의 텍스트는 그 스스로의 몸짓 속에 이미 배제의 대상이 들어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진실까지도 의문 부호 속에 넣어 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모순적 서술에 대해 산즈 비야누에바는 이 책에는 공식적인 이야기와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함께 삼입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제시한다고 말한다.²⁰⁾

이러한 면은 주인공이 자신이 태어난 까탈루냐와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모험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카탈루냐에 대한 긍지를 보여 준다.

하나의 언어는 사전과 문법 그리고 문학 전통이 있을 때 독립된 언어이다. 안 그래? 까탈루냐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했다. (R, 102)

하이메 1세는 카스티야 이전에 국토회복 전쟁을 완결 지웠다. 당시 카탈루냐는 지중해의 주요 강국 중의 하나였다. (R, 102)

그밖에 의심할 수 없는 카탈루냐의 우월성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 (R, 141)

카탈루냐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대한 정체성은 그 기원을 찾는 신화적 차원으로 이행된다. 헤라클레스로부터 한니발 시대에서의 도시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원천을 찾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미지는 포착되지 않는다. 많은 이

20) Santos Sanz Villanueva, *Historia de la novela social española (1942-1975)*, op. cit., p. 483.

름들이 이 도시를 나타내기 위해 소개된다. “바르세노네, 바르시노나, 바르실로, 바르실로나, 그리고 바르셀로나” (R, 224) 그런데 역사를 통해 흘러온 각각의 이름들은 계속해서 화석화된 채로 남을 뿐이다. 즉, 바르셀로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화자는 역사 속에서 끝없이 변하는 이 도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숙명적으로 존중되어지지 않은 역사 속에 있는 도시, 운명의 변덕스러움에, 사건들의 표류 속에 불연속성을 지닌 채 표류하는 도시, 1934년 분리주의자들의 바르셀로나, 1936년 무정부주의자들의 바르셀로나, 1937년 공산주의자들의 바르셀로나, 1939년 파시스트의 바르셀로나 ... (R, 289)

성스러움 속에 끼여든 오명의 역사는 성스러움 자체가 존재했었다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카탈루냐와 에스파냐의 장황한 묘사는 오히려 묘사하는 대상 자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한 채, 독자로 하여금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는데 혼란을 가중하게 한다. 이것은 언어적 구조를 통하여 신화적 차원으로 화한 대상을 탈신화화 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고정된 역사에 대한 반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품이라는 ‘성가족 성당’에 대한 은유적 언급에서 부연된다. 즉, 미결정인 채로 남아 끝없이 다시 쓰여질 뿐 고정된 카탈루냐 그리고 스페인의 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시 쓰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괄호 속에 넣어서 생각하기 위해 먼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킨 후 현재적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한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 시선은 프랑코 시대까지의 스페인의 정치, 사회적인 움직임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응시했다면, 화자의 내부적 시선은 그 사실이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방법으로 비판해 보는 것이다. 그 속에선 어떠한 이분법적인 시선도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규범, 법칙도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자의적인 의도가 누적되어 생겨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고이띠솔로는 내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해가 가는 하나의 전쟁만이 있다: 내란이라는 것. (...)

그 전쟁에서 각자는 동기가 어떠한 자신이 택한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실제에 적용해보고 구체화시켜볼 수 있다. 여기서 내란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가장 인접해 있는 이웃을 대상화할 수 있는 장이다.”(R, 647) 그런데 그 중 승리한 요소들은 살아남아 영구성을 띤다. 그 영구성은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사상 또는 이웃에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일상의 팽창된 모습이며, 연장과 공고화를 통해 역사를 가정한다.”(R, 647) 즉, 자의적이었던 어떤 요소가 부가된 힘을 통해 규범과 나아가 역사적 사실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전쟁과 대비될 수 있는 다른 시선의 전쟁을 화자는 언급한다. “죽음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기에는 너무 어린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전쟁의 폭격으로) 죽었을 때”(R, 379), 그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그리고 분절된 채 남아있는 내부화된 기억 속의 전쟁이 그것이다. 그 속에는 논리성과 인과 관계는 제거된 채, 자기 곁에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부재하는 어머니의 상만이 남아 있다. 이 자전적 기억 속에는 시간의 연대기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커다랗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의미를 얻는다. 즉, 아이는 전쟁에서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항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재화되는 어머니의 모습만을 찾아낸다. 이렇게 주관화된 기억은 원래의 공식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단지 각 순간 속에서 발하는 두드러진 순간만을 강조할 따름이다.

『다시 쓰는 이야기』에서 역사가 화자의 기억 속에 투영되어 존재한다면 마르틴 가이페의 『뒷방』에서의 역사는 기억과 더불어 꿈의 구조로 나타난다. 소설 속의 화자는 자정을 넘어선 시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방문을 받고 그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그녀의 과거와 문학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쳤던 프랑코 시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당시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마르틴 가이페는 프랑코가 만들어 놓은 역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당시 나는 역사를 증오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역사책이나 신문 등에

서 전해오는 소식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CDA, 54).²¹⁾ 따라서 그녀는 정권 영웅들의 “영광스러운 사건들 (acontecimientos gloriosos)”을 거부하고 역사가들이 프랑코의 직접적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던 이사벨 여왕에 대한 경배를 그만둔다. 진행하는 연속적인 역사를 회의하며 그녀는 “프랑코가 시간을 마비시켰다고” 말한다. (CDA, 133).

그러나 역사와 시간에 대한 전망 속에서 마르틴 가이떼는 프랑코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의 세계를 내놓지는 않는다. 즉, 리얼리즘 소설에서처럼 경화된 신화적 세계관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일련적이며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비결정적인 꿈이나 기억의 구조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존재이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단지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억되거나 고정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를 보았고 이야기했던 각각의 사람들은 결코 완전히 재구성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CDA, 167)

『뒷방』의 은유는 여기에서 나온다. 겉으로 드러난 논리성의 세계가 부서질 때 내부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는다. 그녀가 감추어진 역사를 들추어낼 수 있는 내부로부터의 기억, 즉 기억의 ‘뒷방’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어 풀어 보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문학을 통해서 바라본 지난 일에 대한 한 진실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다.

전후에 관한 책은 지금처럼 역사의 진행을 꿈의 리듬과 연계시키면서 계시의 순간에 그것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물건이 바로 제자리에서 벗어나 뒤엎켜 있는 방처럼 그렇게 넓고 뒤범벅이 된 파노라마이다. 모든 것은 역사에 대한 개념 앞에 내가 직면했던 당혹함에서 기인한다. 바닥 위에 던져진 장난감들과 책들로 뒤엎켜진 거기 뒷방에서의 느낌처럼. (CDA, 104)

21) Carmen Martín Gaité, *El cuarto de atrás* (1978), Barcelona, Destino, 1992. 약자로 CDA로 표기하며, 인용된 문장과 함께 괄호 안에 있는 쪽 번호는 이 출판사에서 인용한 것임.

이것은 또한 『다시 쓰는 이야기』에서 주인공 라울이 카스티야와 카탈루냐의 모든 역사를 로마의 형성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장황하게 서술하면서 그 정체성을 찾았으나, 결국 발견한 것은 고정된 한 실체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처럼 시간 속에서 끝없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프랑코처럼 역사를 붙들어 매고 고정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자의적인 것의 절대적 지배 (*dominio absoluto de lo arbitrario*)” (R, 654)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이다.

5. 나가면서

미셸 푸코는 “불연속성(*discontinuidad*)”의 용어를 도입하며 역사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고전적 형식의 역사에서 불연속적인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련의 산재한 사건들은 분석, 우회, 환원 때로는 삭제의 방법을 통해 연속성을 지니도록 정리되어져야만 했다. 불연속성은 역사가가 역사로부터 말할해야만 할 사명을 가졌던 시간에 대한 일탈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불연속성은 역사 분석의 근본적인 요소들의 하나가 되었다.²²⁾

본래 불연속성을 가진 사건들에 연속성을 주기 위해선 역사가의 자의적인 잣대가 적용된다. 그런데 역사가의 개입은 사건을 그 자체에서 멀어지게 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한 전망만을 남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사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애초에는 우연적 사실이었음을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찰한 푸코처럼 고이띠솔로와 마르틴 가이떼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의 연속성을 찾는 일을 그만둔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성상 그 자체로서 나타날 수 없

22) Michel Foucault, *La arqueología del saber*, Aurelio Garzón del Camino, trad., México, D. F., Siglo Veintiuno, 1991, p. 181.

는 것을 기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연대기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대신에 그들은 기억과 꿈의 형태로 된 조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방법을 통하여 그들은 사물에 대한 기계적 반영에서 오는 독선과 허위를 드러내며 다양한 전망을 불연속적 또는 비인과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되는 현실을 발견하게 한다.

20세기 전반부 그리고 내란을 거치면서 너무나 커다랗게 역사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모든 것을 지배하였다. 문학도 그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역사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그것에 대하여 말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1970년대 작가들은 역사 역시 자의적이고 상상적인 픽션의 구조와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역사를 해체시키는 작업이 문학을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허구를 통하여 보다 진실되게 현실의 구조를 성찰할 수 있는 글쓰기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고이띠솔로와 마르틴 가이떼를 비롯한 전환기 스페인 작가들의 새로운 글쓰기는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져 있다.

참고 문헌

- ABELLÁN, José Luis, *Historia del pensamiento español: de Séneca a nuestros días*, Madrid, Espasa Calpe, 1996.
- BUCKLEY, Ramón, *Problemas formales en la novela contemporánea*, Barcelona, ediciones península, 1968.
- FOUCAULT, Michel, *La arqueología del saber*, Aurelio Garzón del Camino, trad., México, D. F., Siglo Veintiuno, 1991.
- FRANCO, Francisco, *Franco ha dicho*, Madrid, Voz, 1949.
- GOYTISOLO, Luis, *Recuento* (1973), Madrid, Alianza, 1987.
- GULLÓN, Ricardo, “Un texto de aire y de fuego”, *El cosmos de «Antagonía»*, Barcelona, Anagrama, 1983.
- HERZBERGER, David K., “Narrating the Past: History and the Novel of Memory in Postwar Spain”, *PMLA*, V. 106, N. 1, January 1991.
- MARTÍN GAITE, Carmen, *El cuarto de atrás* (1978), Barcelona, Barcelona, 1992.
- ROBBE GRILLET, Alain, *Por una novela nueva* (1963), Caridad Martínez, trad., Barcelona, Seix Barral, 1965.
- SANZ VILLANUEVA, Santos, *Historia de la novela social española (1942-1975) I*, Madrid, Alhambra, 1980.
- SOBEJANO-MORÁN, Antonio, “Ironía y parodia en *Recuento* de Luis Goytisolo: Crítica y destrucción de la España de posguerra”, *Hispania*, 72, 3, septiembre 1989.
- VALENTE, José Ángel, “Luis Goytisolo: *Recuento* (tres fragmentos de una lectura)”, *Ínsula*, 341, abril 1975.
- 롤랑 바르트, 『신화론』, 정현 옮김, 서울, 현대미학사, 1995.
- 존 H. 엘리어트, 『스페인 제국사 1469-1716』, 김원중 옮김, 서울, 까치, 2000.
- 황병하, 『반리얼리즘 문학론』, 부산, 열음사, 1992.

【Resumen】

Luis Goytisolo y Carmen Martín Gaité ante la historia

Min Hyun Cho

En líneas generales, podemos decir que la novela española de los 70 comparte un contexto, desde el punto de vista sociológico, con las novelas del medio siglo, en cuanto que supone una reflexión sobre la sociedad, la cultura, la religión y la política; es decir, las experiencias de un testigo y protagonista de la historia de la posguerra.

Sin embargo, podemos entender que esta parte mimética no es un reflejo mecánico del mundo exterior sino un mundo creado dialécticamente entre la realidad y el lenguaje del que se ofrece una visión nueva.

Para ello, la técnica empleada por los autores de los 70 es la visión retrospectiva que los narradores utilizan para ofrecernos su propia visión sobre el pasado. Así, la memoria interiorizada del narrador introduce un nuevo horizonte en la percepción de la historia. La memoria o el sueño, en su esencia, tienen una característica de discontinuidad de lo que ocurrió y saca a la luz algunos puntos determinados sin el transcurso cronológico del tiempo.

De este modo, la escritura de Goytisolo y Martín Gaité -como emana de los títulos, *Recuento* y *El cuarto de atrás*- es reconstruir cuestionando la existencia de originalidad de lo que existió en realidad. Por tanto, solo existe el discurso de cada momento. Para conseguir la continuidad de los acontecimientos debe pasar el control por el historiador de manera

arbitraria. Esa intrusión del historiador está lejos de la verdad misma y sólo hace intervenir a la perspectiva de quien la cuenta. De ahí que estos escritores renuncien a describir la Historia porque se dan cuenta de que no se puede representar en sí misma. Por lo tanto, en lugar de intentar escribir la Historia de causas y efectos cronológicamente, nos muestran unos fragmentos de reflexiones a través del recuerdo.

Como la búsqueda genealógica de Michel Foucault, el novelista no acepta la idea de que la continuidad es lo absoluto de la historia y lo único ante los acontecimientos del ser humano.

Concluyendo, con la publicación de estas obras, Goytisolo y Martín Gaité contrarrestan el sistema de los mitos sociales con la intención de transformar la 'Eterna España' de la dictadura franquista. En otras palabras, su escritura plantea de forma distinta la historia y sus verdades, de tal suerte que los autores configuran su oposición al pasado mítico de varias maneras.